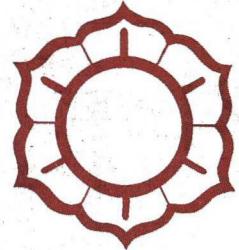


불교총지종은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을 교주로, 음마니반메  
훔을 본존으로,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  
교화를 표방한 재가종단입니다.



# 총지종보

2003년  
3월 1일  
토요일  
제 42호

이 달의 종조법설  
수도는 종교적 육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영원한 진리를 체험하려면 가치실현을 위한 인격활동 즉 실천수행이 수반되지 않을 수 없다. 미망된 현실은 결코 신이 조작한 것도 아니요, 인도 없고, 연도 없이 이루어진 것도 없다. 모든 인간 자신이 지은 것이므로 인간 스스로가 이에 책임을 지고 불행한 현실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발행인 : 법공 편집인 : 김용주 인쇄인 : 김준배

www.chongji.or.k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사항을 준수한다. 구독신청 : (02)552-1081

## 바른정진, 큰공덕 상반기 49일불공

### 불공은 해탈에 이르는 길, 바른 삼밀관행법으로 용맹정진

상반기 49일불공이 2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전국 사원에서 스승님과 교도 보살들이 동참한 가운데 동시에 입제되었다. 이불공 기간에는 국가진호와 자녀의 안녕과 경제력 향상을 서원하며 정진한다.

상반기 49일 불공 입제에 즈음하여 종령(복장)님께서는 “불공은 불교의 수행이고, 그 목적은 성불에 있다. 즉 자신의 마음을 닦아 대낮같이 밝고 맑은 마음으로 대광명의 빛으로 부처의 경지에 이롭고 동시에 아무데도 걸림이 없는 대자유의 경지요, 인간이 추구하는 세간적인 모든 욕망과 집착을 버리고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방법이다.”

특히 우리 종단은 진언과 다리니를 주로 하는 밀교종단으로 옴남(정법계진언)은 능히 삼업(신·구·의)을 모두 청정케하고 일체좌장이 다 소멸하며 일체승사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있는 곳마다 청정한 의복을 얻으며 깨끗치 못한 옷이 분명 깨끗해지고 목욕하지 않아도 목욕한 것과 같은 것이니 만약 물로써 깨끗하게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깨끗함이 아니요, 만약 이 법계심(남)자로 깨끗하게 한다면 이것이 진실로 필경 청

#### 인사 빌령



사회부장 인법계전수



일상사 수현정사



일상사 자심만전수  
시는 만보사, 이중석(화령), 김홍배(법),  
는 법장원, 장선옥(금강문)은 운천  
이선희(정계월)은 총지사로)을 하였



◆진언염송삼매에 들어가 있는 총지종 교도

정한 것이 된다.

옴치림(호신진언)은 능히 오역십악과 일체좌장을 소멸하고 일체병고좌장 및 악몽시마·귀신 등 모든 불상사를 제거하며 일체승사와 모든 소원이 원만하게 성취된다. 이 진언이 곧 모든 불심이니 만약 사람이 지침으로 한번 염송하면 능히 자기 몸을 수호하고 일체귀신과 천마가 감히 가까이 침해하지 못하며 두 번을 염송하면 동반자를 수호하며 세 번을 염송하면 한 집안 사람을 수호하며 네 번을 염송하면 한 성종 사람을 능히 수호하고 일곱 번을 염송하면 사천하 사람을 능히 수호하는 공덕이 있다.

온마니반메훔(육자대명왕진언)

자는 있는 곳마다 한량없는 불보살과 천룡팔부 다 모이고 무량한 삼매법문이 구족하여 칠대종족이 다 해탈하고 배 가운데 모든 벌레가 모두 보살 위를 얻을 지며 이 사람이 날마다 육바리밀의 원만한 공덕을 갖추어 무진번재와 청정자혜를 얻고 입 가운데 나는 기운이 다른 사람 몸에 닿으면 그 사람도 모든 진독을 여고 보살의 위를 얻는다. 만약 사천하 사람들이 모두 칠지보살의 위를 얻더라도 그 보살들의 소유 공덕이 육자진언 한 번 염송하는 공덕보다 못한 것이니 이 진언은 곧 관세음보살의 미묘본심이라 만약 사람이 이 육자진언을 서사하면 팔만사천법장을 서사한 공덕과 같으며 이 진언을 봄에 가지면 그 사람이 손이 닿는 곳과 눈으로 보는 곳의 일체유정이 속히 보살 위를 얻어서 영원히 생로병사의 고를 받지 아니한다.



종조 원정대성사 진영

종조전 건립에 대한 설명회와 공사시기를 결정하기 위한 전당건설위원회가 2월 13일 오후2시 통리원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서 그동안 법장원과 통리원에서 연구한 종조전의 자료를 바탕으로 김병구교무가 제시한 종조전 양식과 규모를 확정하고, 총공사 예산금액 7천4백만원, 공사기간 2개월로 3월 중순부터 총지사 2층에 종조전 건립 공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반드시 자녀를 낳으며 무릇 구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어서 여의주와 같은 것이다.

또한 이 진언을 지송하면 국왕대신과 모든 중생들이 환희심을 일으켜서 불에 사망하고 공경하며 이 진언을 지송하는 사람은 불에 빠짐이 없고 불에 상함이 없으며 독약과 원가와 전란과 강적과 악룡과 짐승과 모든 귀재 등이 모두 침해하지 못하고 법대로 지송하면 관세음보살과 금강수보살을 친견하게 된다.”라고 불공과 진언의 공력을 살펴면서 “불공기간동안 종단내 모든 스승님과 교도 보살들이 오상성신의 불퇴전과 신구의 바른 삼밀관행으로 자신의 허물을 없애고 불상을 찾기 위해 용맹정진하기를 지심으로 서원한다”고 하였다.

### 구법의(흑색)사용에 대한 지침시달

총지종 통리원장(법공)은 1월 16일(신년하례법회)에 종령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구법의(흑색) 사용에 대한 지침을 시달하였다.

총지종 종령(복장)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색법의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스승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1월 16일 종령령으로 구법의(흑색)를 사용해도 좋다는 발표를

하였으나 구법의(흑색)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가 없어서 그동안 혼란을 초래하였다.

이에 통리원장(법공)으로 하여금 구법의(흑색)는 조석장송시, 가정불공시, 장례시 장지불공, 기타 불편한 장소에서 불공시에 사용하도록 지침을 시달하였다.

사를 진행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하였다”고 말했다.

한편 통리원(통리원장 법공)은 이번에 종조전을 건립함과 동시에 종조님 탄신 100주년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종조님의 녹취록, 소설된 서적 등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세미나 및 각종 행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 죽비소리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네  
버릴 것은 오직 간택심뿐  
밉다 곱다는 마음 없으면  
툭 트이어 명백히리라

허공처럼 원용하여  
남고 모자람이 없건마는  
도리어 취사심 때문에  
한결같지 못하도다

마음이 평등에 계합하면  
주객이 함께 끊어지고  
의심이 다해 없어지면  
바른 마음이 고루 곧게 되느니라

중국선종의 삼조 승찬스님  
- 신심명(信心銘)에서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남편이, 아내가, 부모, 친지, 친구가 1000도 넘는 열기 속에서 한 모금만 마셔도 숨이 턱턱 막히는 유독가스 속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갔는데 유가족들의 슬픔을 무엇으로 대신 할 수 있다는 말인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는 사고의 현장은 보는 이로 하여금 희생자들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으며 가족들과 마지막 통화를 하는 희생자들의 뉘앙스를 들을 때는 그들의 참담한 절망과 공포를 짐작할 수 있었다.

이번 사건에 일차적인 책임을 물어야하는 50대 방화범은 현재 체포되어 병원 치료 중이며 그가 왜 그랬는지는 정확하게 보도되고 있지 않다. 물론 앞으로 모든 것이 밝혀지겠지만 지금까지 보도된 자료를 보면 그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관 그리고 사회에 대한 분노가 불특정 다수에게 대한 적개심으로 표출되면서 지하철에 불화를 한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죄는 예방하기도 힘들고 그 피해는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아무런 연관이나 이유도 없이 억울하게 당한다. 이러한 범죄는 선진국일수록 그 피해가 크고 발생률도 높다. 사회가 점점 전문화, 분업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물질만능주의에 의한 인간성 파괴, 자아상실 때문일 것이다.

대구지하철 방화범도 우리를 주위에서 흔히 보는 평범한 50대 가장이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를 이렇게 천인공노할 악인으로 만들었다는 말인가. 정확히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부분은 우리 사회가 일조를 하였음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인간은 여러 가지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동기를 부여해주어야 한다.

대구지하철 방화범의 심리를 매슬로우의 이론을 빌어 설명하면 그는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고 싶은 소속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였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은 성취욕구 즉 존경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자아실현은 있을 수가 없게 되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욕구는 달리 말하면 꿈, 희망이다. 사회나 조직이 그 구성원들에게 희망이나 꿈을 주지 못하면 대구지하철 방화사건과 같은 엄청난 사건이 생기면서 그 사회나 조직은 붕괴되고 만다.

## 총기32년 상반기 49일 불공

불공은 불교의 수행이고,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고, 육자대명왕진언은 모든 중생들의 번뇌와 고뇌를 없애며, 관세음보살의 미묘본심이라 만약 사람이 이 육자진언을 지성으로 염송하면 일체유정이 속히 보살 위를 얻어서 영원히 생로병사의 고를 받지 아니한다.

- 일 시 : 총기32년(불기2547년) 2월 19일 ~ 총기32년(불기2547년) 4월 8일
- 장 소 : 불교 총지종 전국 사원
- 대 상 : 총지종 교도 및 불교에 관심 있는 모든 불자.

불교총지종 統理院長 法空 합장



# 사설

## 분과위원회의 활동에 대하여

법공 통리원장이 취임한 아래 종단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의 하나로 분과 위원회의 창설을 들 수 있다. 법공 통리원장에 의하면 총괄기획위원회를 포함한 9개의 분과 위원회를 운영하여 종단 발전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각 구성원의 창의성을 최대한 이끌어 내어 원만한 종교운영에 밀거름이 됨과 동시에 종단발전의 기폭제로 삼고자 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고 했다. 지난 10월 취임以來 수차례 걸친 위원회 회의가 열렸지만 아직 가시적 성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종단개혁의 뚜렷한 지향점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황식 의견수렴에만 치중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원회의 토의 내용도 큰 틀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분이 지역적인 것에 치중하여 시간을 소모했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보이지 못했던 것이다. 또한 시간의 경과와 함께 처음의 열의가 식고 소극적 참여로 인한 회의 구성요건이 미달된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위원회의 위원장회의를 통하여 종단발전의 뚜렷한 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본 종단은 여러 차례 개혁을 부르짖었지만 구두선에 그친 예가 허다하다. 그동안 수 차례의 회합을 통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을 대체로 밝혀졌지만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의식의 과감한 혁신이 있어야 할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 따라서 먼저 종단 운영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매너리즘이 타파되어야 하며 심지어는 이른바 종교상의 불가정조항까지도 과감하게 던져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요즘은 각 분야에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인 틀만 마련된다면 세부 사항은 전문인력을 동원하여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원회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위원장회의를 통하여 종단발전의 큰 틀과 지향하는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는 일이다. 아울러 집행부와 각 위원회가 이러한 입장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인사들의 열의와 각성은 말할 것도 없고 전 종단 차원의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 대구 참사에 애도를 표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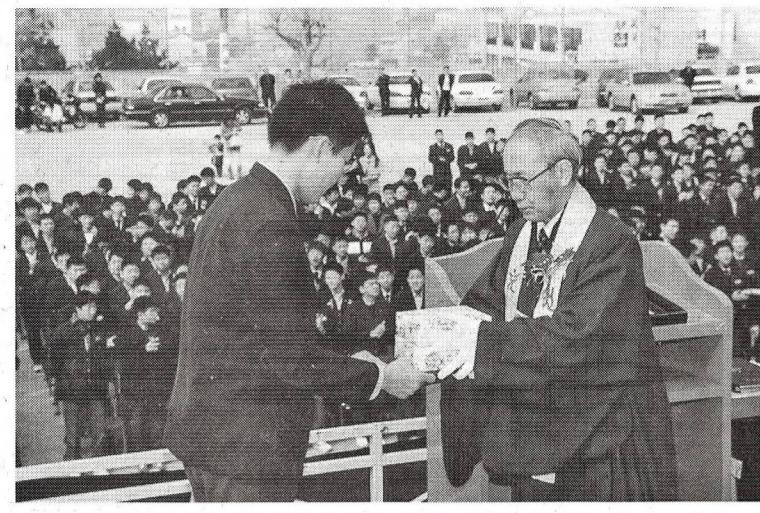
미국과 이라크 사이의 자존심 대결로 중동에 전운이 감돌면서 세계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북한의 핵문제로 인해 긴장감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 서민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이 때에 대구 지하철역 참사는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다. 서민의 불이라고 할 수 있는 지하철에서의 사고는 가뜩이나 불안한 사회분위기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먼저 이번 참사에 희생된 수많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이 생에서의 업보가 다하고 극락왕생하시기를 기원한다.

이번 사고는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의 세계를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이 결국은 이러한 비극을 가져왔고 또 어느 날인가는 우리들에게도 직접 닥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에 대한 무관심과 태만이 쌓이고 쌓여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은 우리 사회 모두가 저지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는 수 많은 대형사고를 경험하고서도 일시적으로 안전진단이다 뛰어 하면서 호들갑을 떨었지만 금새 잊고 미는 어리석음을 반복해 왔다. 그 과정은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 것이다. 중증재해의 깊고 설친 중생세계는 곧 연기의 세계로서 나 하나의 몸짓이 사회와 국가, 나아가서는 온 세계, 온 우주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명심하고 선업을 쌓기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비단 이번과 같은 참사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사회의 불의에 눈감고 환경 문제를 남의 일처럼 무관심하게 여길 때에 결국 그 과정은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고야 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종립 동해중학교 제33회 졸업식

## “정열로 아름다운 세상 건설하자” 다짐



◆ 종립학교 이사장인 수성종사가 상장을 수여하고 있다.

종립 관음학사인 동해중학교 운동장에서 2월 19일 오전 11시 동해중학교 이사장(수성), 총지종 통리원장(법공), 학교운영위원장(이근대), 어머니회장(황인숙), 동창회 임원 등 20여명의 내외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33회 졸업식을 가졌다.

이날 졸업식은 개식사와 성적우수자 및 선수자에 대한 상장 수여식과 동해중학교 교장의 회고사, 동해중학교 이사장의 치사, 총지종 통리원장의 축사, 재학생 송사, 졸업생 답사 순으로 거행되었다.

회고사에서 동해중학교 교장(강경중)은 “어제를 반성하고,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에 충실했던 사람이 되자”라는 우리학교의 생활지표를 강

조하면서 “눈은 푸른 하늘을 응시하며 미래를 창조하고, 두 발을 대지에 굳게 디디고서 자신의 소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뜨거운 가슴으로 타오르는 정열로 아름다운 세상을 건설하자”고 당부하였다.

동해중학교 이사장(수성)은 치사를 통해 “졸업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알을 깨뜨리는 아픔이 있어야 창공을 나는 새가 될 수 있듯이 새로운 세계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동해의 졸업생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인생의 긴 행로에서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총지종 통리원장(법공)은 “여러분은 이 나라의 보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새로운 정보화시대요,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기능을 습득한 젊은 인재들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참되고 씩씩하게 자라서 21세기 주역이 될 수 있는 훌륭한 역군이 되고 부모의 은혜, 모교의 은혜, 선생님의 은혜, 나라이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주길 바라며 며칠 후면 고등학생으로서 더 넓고 깊은 배움의 길에서 큰 꿈과 희망을 펼치시고 거듭 졸업을 축하한다”고 축사를 하였다.

이날 이사장상은 최진영군, 학교장상은 빙승현군, 이상원군, 조현호군, 기타 대내외상 35명이 수상하였다.

또한 불교반 학생중 성적이 우수하며 품행이 단정한 학생으로서 1,2학년 중 5명, 3학년 중 5명을 선발하여 각각 200,000원씩 지급하는 총지종 장학금 수혜자 윤진석, 흥성욱, 고일환군 등 5명에게 총지종 통리원장(법공)이 직접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졸업한 300명의 학생들은 인문계 180명, 특수고 10명, 실업계 109명, 기타 1명이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새로운 인생의 항로를 향해 출항하였다.

## 시무교육개강

### 일선사원 스승님을 초빙하여 실무위주 교육시행



◆ 강의를 경청하고 있는 예비스승의 열의가 충만하다.

시무11(총지사: 이중석, 김홍배, 이선희 3명, 벽룡사: 황보상민, 이희자 2명, 백월사: 유성형, 이옥진 2명, 운천사: 장선옥 1명, 정각사 박인관 1명, 개천사: 최명현, 곽노주 2명)에 대한 시무교육이 2월 11일 오전 9시 30분 개강식을 시작으로 근본불교(회령), 불공과 교화(법등), 교화실무1(인법계), 교화실무2(지성), 종학(법경)의 과목으로 16일까지 시행되었다.

시무는 승직의 계를 받기 전에 부

르는 명칭으로 승직법 제11조(승직의 관정수계를 받기 전까지 7개월 동안 일정교육을 받고 일선사원에서 교화실무를 배운다.)에 의거하여 7개월 동안 교육을 받게 된다.

개강식에서 통리원장(법공)은 “이번 시무교육은 종단 역사상 최대의 인원으로 예전까지 진행해 왔던 교육의 형식을 탈피하여 불교의 교리와 교화실무를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으며 7개월 동안 매일 1주일 씩 통리원에서 교육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또한 각사원 스승님 및 기로스승님들을 강사로 초빙하여 일선사원에서 교화하는 가운데 터득한 교화의 문제점과 방법 및 방향에 대한 강좌를 개설하여 실무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여러분은 우리 종단을 이끌어 갈 중요한 인재로서 항상 수행자다운 모습으로 교육에 임해주시기를 당부 한다”고 하였다.

한편 중앙교육원에서는 현직 스승에 대한 재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직 스승을 대상으로 한 보수교육을 준비할 예정이다.

## 사감원

### 총기 31년도 결산감사를 실시하면서

사감원에서는 총기 32년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유지재단 및 통리원 각부 그리고 종단 산하단체 등을 대상으로 정기감사의 일환으로 총기 31년도 결산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총기 31년도의 예산집행 등 회계처리 전반과 주요업무 추진의 적정성 여부, 사원신축 공사, 사원수리비 지출의 적정성, 용역 및 물자구매계약의 적정성, 조직·인력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감찰 및 예산운영·회계처리의 투명성, 인사처리의 적정성, 인재양성 계획, 승직자 및 종무원의 복지실태와 향후 대책과 나아가 공권직종무원의 종무행위도 종점감사 사항에 포함하고 기타 종무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종점점검과 동시에 각부서별로 애로사항도 청취하였습니다.

사감위원 법성종사

이 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본래 목적대로 법 절차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검사·감독하고 유지재단, 통리원 및 종단 산하기관의 각종 업무처리를 감찰(監察)함으로서 종단의 발전을 능동적으로 유도하는데 있으며 사부대중으로부터는 신심과 화회심을 불러일으키며 하여 종단의 위상을 재고하고 종조님의 유훈을 받드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법과 상식을 뛰어 넘어 사회의 통념마저 깨뜨린 행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 교화의 취약분야 의견도 청취

### 종무행정의 대안 및 방향제시

사감원은 이번 정기감사를 통해서 특히 최근 침체된 교회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과 현집행부의 의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과별 활동에 관한 중간보고와 그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방향 설정, 교화의 취약분야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앞으로는 묵묵히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업무를 적극적·창의적으로 수행하는 승직자 및 종무원들은 적극 발굴하여 사기도 진작시킬 예정입니다. 감사는 우리 사감원 고유의 업무 중의 한 분야에 속합니다. 감사를 실시하는 뜻은 다음의



◆ 2월 17일 포항 수인사에서 대구 경북고구 교화 연구회(교구장 우승 정사) 교화연구비 활용방안과 창교 30주년 만다라 도첩 표구에 대한 의견과 교화 활성화 방법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 우리 모두 부처님의 참사랑을 어려운 이웃과 나눠요

2003년 1월 20일부터 2003년 2월 14일까지

개천사	이희권	10,000	밀인사	이위임	60,000	실지사	관음행	5,000	정각사	강길순	10,000	화음사	강순란	5,000
개천사	황귀석	10,000	밀인사	이재호	20,000	실지사	박 훈	10,000	정각사	김점남	10,000	홍국사	강한빛	10,000
관성사	정인순	10,000	밀인사	이혜성	10,000	실지사	송무생	5,000	정각사	김점남	10,000	홍국사	강문석	10,000
관성사	최해선	10,000	밀인사	정정희	5,000	실지사	송우섭	5,000	정각사	김정연	30,000	김정애	10,000	
관성사	황성녀	10,000	밀인사	최정식	15,000	실지사	이명환	3,000	정각사	남숙자	20,000	매 월	3,000	
기로원	대 관	20,000	밀인사	한영일	5,000	실지사	이상배	5,000	정각사	신영자	5,000	무명씨	10,000	
기로원	대 자행	20,000	밀인사	허을순	15,000	실지사	이순명	5,000	정각사	윤원숙	10,000	무명씨	10,000	
기로원	법 장화	20,000	법천사	김정숙	5,000	실지사	이옥분	10,000	정각사	이옥희	35,000	박광자	10,000	
기로원	상지화	20,000	벽룡사	김종선	3,000	실지사	이화수	10,000	정각사	정희연	10,000	배운택	10,000	
덕회사	서영순	20,000	벽룡사	박은숙	5,000	실지사	장근도	10,000	정각사	최옥심	10,000	여래심	10,000	
덕회사	안호정	5,000	벽룡사	오미순	5,000	실지사	최영애	10,000	정심사	박옥란	10,000	이병조	20,000	
만보사	감영삼	10,000	성화사	김을임	3,000	실지사	최 윤	5,000	지인사	김기백	10,000	임동수	5,000	
만보사	배정임	10,000	성화사	김정숙	10,000	실지사	최채숙	5,000	지인사	류윤자	12,000	정애자	10,000	
밀인사	김경창	50,000	성화사	신도희	100,000	실지사	최 환	5,000	지인사	신도희	373,000	함정후	5,000	
밀인사	김덕자	20,000	수인사	김봉기	10,000	실지사	한수연	10,000	지인사	임순옥	5,000			
밀인사	김춘우	10,000	수인사	김정숙	10,000	실지사	황석순	10,000	총지사	이인성	20,000			
밀인사	신대식	10,000	수인사	김 진	10,000	운천사	강성근	5,000	통리원					

이달의  
설법문안

# 보시(布施)는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괴로움을 해탈하는 방법이다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해 가는 방법은 다양해서 하나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지만 핵심적인 원리로는 인과(因果)의 법칙이 연기(緣起)와 만나 전개되는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원리는 세상을 좀더 부드럽게 하고 따스하게 하는 가르침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시입니다. 보시는 베풋은 근본으로 세상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가는 운활유와도 같은 것입니다.

먼저 초발심자경문을 보면 “삼악도(三惡道)의 괴로움을 가져오는 데는 탐욕으로 지은 업이 첫째가 되고, 육바라밀 중에서는 보시가 유품이 되느니라, 간접은 능히 착한 길을 막고 자비로 보시하면 반드시 악한 길을 막느니라, 만일 가난한 사람이 와서 구걸하거든 너머지 못하더라도 아끼지 말라. 올 때도 한 물건 없이 왔고 갈 때도 또한 빈손으로 간다. 나의 재물에도 연연할 것 없거늘 다른 이의 재물에 어찌 마음을 두는가? 살아생전 아무리 많이 장만해도 죽은 다음 가져갈 것은 오직 지은 업뿐이다. 사흘 닦는 마음은 천년의 보배가 되고 백년 탑물은 하루아침에 터끌이 되느니라. 노래하노라 어찌하여 괴로운 삼악도가 생겼는가? 다생토록 탐하고 애착가진 때문일세, 부처님의 사사 밸우 이대로 살만한데 무엇하려 쌓고 모아 무명만 기르는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자신

을 괴롭히는 것은 욕심이고, 탐진 치 삼독으로 끝없는 괴로움의 바다에 빠져 해매고 있는 것이고, 괴로움을 해탈하는 방법은 보시뿐이다.

생각해보면 누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욕망을 통해 나의 괴로움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재산을 가졌어도 만족하면 행복이고, 만족하지 못하는 욕심은 고통을 낳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복의 기준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가치관을 통해 형성됨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현상은 그렇지만 문제는 지금부터 또다시 맞이할 미래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는 별 노력도 없어 보이는데 평생을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는 데 주어진 물질적 환경은 궁핍합니다. 이런 경우 불교적 해석은 삼세인과로 설명되는 데 과거 전생에 이미 이생을 살아갈 복력을 지어서 지금의 노력과 상관없이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현상은 그렇지만 문제는 지금부터 또다시 맞이할 미래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보시(布施)는 베풋는 것을 말합니다. 보(布)는 나의 재물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뜻이고, 시(施)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풋다는 뜻으로, 산(散) 또는 사(捨)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보시(布施)에는 진리를 가르치는 법시(法施), 의복이나 음식, 재물 등의 물질을 베풋는 재시(財施), 공포를 제거하여 안심케 해주는 무외시(無畏施)의 3종이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베풋다는 생각도 없이 베풋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보시요, 대승에서 강조하는 이타적 자비행의 근본인 것입니다.

첫째, 재시(財施)는 물질을 원인으로 태인의 고통을 제거해주는 수행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삶이라는 자체가 물질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며 모두에게 물질이 평등하게 주어지는

체유심조라는 말에 한 생각 돌이 키면 일체가 내 것이라는 뜻을 유추할 수 있는데 그 한 생각을 돌아가는 원천은 곧 진리를 만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잡아함경에 ‘먹을 것을 베풋면 큰 힘을 얻고, 입을 것을 베풋면 잘생긴 얼굴을 얻으며, 탈 것을 베풋면 안락을 얻고, 등불을 베풋면 밝은 눈을 얻으리라. 손님을 반갑게 맞이하면 모두를 주는 것이고, 범으로 중생을 가르치면 감로를 베풋는 것이니라. 감로는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을 주는 것이

것입니다.

둘째, 법시(法施)는 정신적으로 궁핍해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 좋은 말씀으로 그를 평안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물질을 보시하면 이보다 힘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즉 다른 이에게 따뜻함과 편안함,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이 무외시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베풋면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일

래서 물적인 것을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남과 더불어 나눔의 아름다움을 실천할 때 따뜻하고 미래는 평화스러워집니다. 재시입니다.

셋째, 법시(法施)는 정신적으로 궁핍해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 좋은 말씀으로 그를 평안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일컬는 말입니다. 물질을 보시하면 이보다 힘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즉 다른 이에게 따뜻함과 편안함,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이 무외시입니다.

지요.”라고 설하였습니다.

셋째, 무외시(無畏施)는 다른 생명의 공포심을 제거해 주는 행동입니다. 즉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나의 자애로움이라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세수하면서 코민지는 것보다 쉽고, 어렵게 말하면 세상에 이보다 힘든 일도 없을 것입니다.

법구경을 보면 “인색한 사람은 극리왕생 할 수 없다. 어리석은 사람은 베풋 줄 모른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베풋는 것을 좋아하나니 그는 그 선행으로 인하여 보다 높은 세상에서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 뿌리깊은 신심은 도의 근본이고, 모든 공덕의 어머니이다

가져다 줍니다.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고 무엇인가를 믿는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만일 내가 믿지 못하는 무엇이 있

다면 항상 불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못하는 것은 두말 할 나위 없이 공포심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살고 있는 고층 아파트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아예 살지 않을 것입니다.

며칠 전 대구에서 지하철 방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날 지하철을 타는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불안하였지만 안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하철을 탔을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겁니다.

믿음이

겁니다.

## 기획연재 양부만다라 ①

## 태장계만다라(胎藏界曼茶羅)

지난 12월 한국불교 최초로 봉안했던 양부만다라! 밀교종단으로서 위상을 높이고 종단의 교리와 사상적 체계를 공고히 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밀교의 精華! 기획연재를 통해 양부만다라를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만다라에는 많은 종류가 있지만 태장계만다라와 금강계 만다라는 그 규모에서 가장 대표적인 만다리이다. 이 두 만다라는 그 기원이 같지만 중국에서부터 일본에 전해진 밀교의 경우에는 두 가지 만다라가 한 쌍을 이루며 전해져 왔다.

이 양부만다라의 회화적 표현은 양부대경(兩部大經)인『대일경』과 『금강정경』에 근거하는 것으로, 두 경전을 통일적으로 인식하는 교리적 이해에 바탕을 두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실천적이면서 교리적인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회화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런 점에서 진리의 세계를 나타내면서 동시에 신앙의 대상으로 표현되고 있다.

## 태장계만다라와 대일경

앞에서도 언급하였다시피 태장계 만다라는 대일경에 설하여진 가르침을 그림으로



## 태장계 만다라는 보리심·대비·방편의 궁극적 이상 세계

리가, 제2품 이하에서는 만다라의 건립방법과 각종 작법(作法)들이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다.

대일경의 제1품인 입진언문주심품(入眞言門生心品)에서는 부처의 지혜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상세하게 설하고 있다. 부처의 지혜란 '여실하게 스스로의 마음을 아는 것' (如實知自心)이라 설하고 있다. 즉 그것은 부처의 지혜라는 마음(菩提心)을 일으켜서 중생과 고뇌를 함께 하는 연민의 마음(大悲心)에 근거하여 중생을 구제하는 생명활동(方便)을 궁극적인 삶의 방식으로 일궈 나가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부처의 지혜는 이미 대일여래에 의하여 완전하게 성취되어 있으며, 중생에게는 대일여래가 구제하는 작용력이 나타나 있으므로 수행자에게는 그것을 감득하고 그 위에 여래의 지혜를 획득하는 것이 수행의 과제가 된다.

이를 획득하기 위한 수행방법이 제2품 입만다라구연진언품(入曼茶羅具緣品) 이하에서 설해지고 있다. 즉 부처의 지혜를 획득하기 위한 수행이 곧 태장계만다라를 통한 수행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와 연을 맺기 위해 만다라에 들어가는 품'(入曼茶羅具緣品)이라 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만다리에 들어가 부처님과 연을 맺는

것'이다.

태장만다라는 보리심, 대비, 방편이라고 하는 삼구(三句)의 사상에 의해 이루어진 만다라로서 대일여래에 완전하게 구족(具足)되어 있는 부처의 진실한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인 것이다. 그것을 『대일경』의 주석서인『대일경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생명의 탄생이 모태에서 임태되는 것에서 시작하고 육체의 형상을 만들 듯이 보리심을 임태하는 자가 차례로 대비를 키우게 되는 것이 '대비태장' (大悲胎藏)이며, 탄생한 자가 학습에 의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하듯이 대비를 생육(生育)시킨 자가 중생을 구제하는 생명활동을 전개하여 궁극적으로 인생을 만족시키는 것이 '생만다라' (生曼茶羅)인 것이다.」 이와 같이하여 '대비태장생만다라' (大悲胎藏生曼茶羅)라고 불리어지는 것이라 하였다.

즉 태장만다라는 보리심, 대비, 방편이 전면적으로 전개된 궁극적 이상의 세계이며, 그것이 이미 스스로의 마음에 갖춰져 있는 것을 알고, 거기에 자기를 투영시킬 것을 수행자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근본적인 중심사상을 상징화하기 위해서 태장만다라에서는 연화(蓮華)가 그려졌다. 이미 불교에서는 연화가 부처의 경계를 표현하는 비유에 사용되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밀교에서도 연화를 통해 여러 가지를 상징화시켰다.

'대비태장생만다라'의 연화에 관한 상징의 의미를 『대일경소』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 「연화는 딱딱한 껌질 속에서 이미 개화(開花)했을 때의 줄기와 잎과 꽃 등의 특질을 모두 갖추고 있다. 그것은 마치 태어난 것에는 이미 갖가지로 작용하는 마음의 특질이 갖추어져 있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은 연화의 딱딱한 씨앗 속에서 씨가 나와서 꽂봉오리가 맺었을 때의 꽂잎이나 꽃술은 아직 견고하게 둘러싸여 있다. 이것은 마치 미혹 속에 빠져 있는 중생이 지혜를 얻고자 하면서도 아직 충분하게 개화시키기는 못하고 있는 중생심에 비유된다. 그러나 이 꽂봉오리가 바람이나 추위 등으로 시들거나 지나고 있는 신묘(神妙)한 색깔이 퇴색하는 일은 없다. 꽂봉오리 속의 꽂잎이나 꽃술은 날로 영양을 비축하며 아름다운 꽃을 비장(秘藏)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대비심(大悲心)을 태장(胎藏)하는 모양새에 비유된다. 그리고 이 꽂봉오리는 헛별을 가득 받고 거기에서 산뜻한 꽃이 피게 되는데, 곧 그것은 부처의 활동이 완성되어진 방편(方便)에 비유되어 진다.」

이와 같이 연꽃은 '대비태장생만다라'의 근본적인 중심사상이 되며, 연꽃은 완전하게 만개(滿開)한 모습으로 중앙에 위치하게 된다. 이 중앙이 곧 태장만다라의 중대팔엽원(中台八葉院)인 것이다.

〈법장원 제공〉

## 한보살의 아름다운 세상

## 음식에 대한 생각

우리가 태어날 때 겨우 3킬로그램 정도의 몸무게에서 지금은 5~6킬로그램이 넘습니다. 이렇게 내 뼈와 살을 만들어 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과 공기와 음식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마신 물과 산소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그동안 우리가 먹은 음식의 양은 또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그 음식은 어떻게 만들어져서 내가 먹게 되었을까요.

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볍씨를 뿌리고 가꾸고 탈곡하기까지 농부의 노고가 있었고, 벼는 땅 속에서 양분을 빨아들이고 햇빛을 받아 열심히 자라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다 익은 벼를 탈곡하고 도정하여 쌀로 만들고 운반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수고한 사람들과 그 기계와 자동차와 건물을 짓는데 필요한 재료와

그것을 만든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미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빵을 생각해 봅시다.

밀가루는 대부분 수입한 것을 쓰니건너 먼나라에서 농부들이 밀농사를 짓습니다. 물론 이들 나라에서는 대부분 기계화된 농법을 쓰겠지요. 그럼 그 기계들을 만들고 운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기계로 밀농사를 지어 수확을 하면 그것을 가져다 도정하고 상품으로 만드는 공장과 그 공장의 노동자들과 그 공장에 관련된 물건과 사람들, 그리고 무역에 관계하는 사람들 배와 배를 만든 사람들 부두에 노동자들, 밀가루 공장과 제과점에 이르는 단계들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밥을 먹을 때 그저 항공기의 밥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천지만물과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담겨있습니다. 빵 한조각을 먹을 때 그것은 1천원이나 2천원짜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돈을 주고 산 것인가 아니라 당연하게 먹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빵 한조각에 담겨있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

는 무수한 사람들과 자연의 은혜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설은 바로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상호의존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의 사물과 사건 속에는 다른 모든 존재와의 인연이 내재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色即是空 空即是色이라고 하며, 一即多 多即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이러한 존재의 본질을 은폐하고 사람들에게 物神主義, 황금민족주의를 확산시켰습니다. 포교란 상의상관성과 공성을 보편진리로 전파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 그와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로소 불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불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식사 때 그 안에 담긴 상의상관성을 살펴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 합니다. 이러한 식

사례법은 스님들께서 하는 오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스며 있고 한 알의 곡식에도 만인의 노고가 담겨 있습니다. 정성으로 마련한 이 음식으로 주립을 달래고 몸과 마음을 바로 하고 청정하게 살겠습니다. 수고한 모든 이들이 선정삼매로 밥을 삼아 법의 즐거움이 가득하여 지이다.

우리는 음식을 섭취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해야 다른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수행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상적인 일 중의 하나가 바로 음식을 먹는 일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야 할지 깊이 생각하고 실천했으면 합니다.

〈불교여성개발원 연구과장 한주영〉

## 한방울의 물은 천지의 지혜

## 한 일의 곡식은 만인의 노고

## 삼신불에 대하여



## 아는 만큼 보이고 느낀다

▶ 법신불(法身佛) :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법신'이란 말 그대로 진리의 몸이란 뜻으로 진리 그 자체를 인격화해서 모시는 것이 비로자나부처님이다. 부처님의 본질은 바로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에 있으므로 「여편고면에」서는 진리 그 자체가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모든 부처님들의 공통된 특성이며 가장 궁극적인 실체가 바로 법신이신 비로자나 부처님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처님은 마치 광명과 같아 특별한 형상이 있을 수 없고 아무런 걸림이 없으므로 온 우주에 두루 편재하여 안 계신 곳이 없으며 청정무구 그 자체이므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고 한다.

## ▶ 보신불(報身佛) : 원만보신 노사나불

'보신'이란 부처님께서 보살로서 수행중에 계실 때 세운 바 큰 원과 닦으신 큰 행의 결과로서 받게 되는 '과보의 몸, 공덕의 몸'이란 뜻이요. 곧 노사나부처님은 원만무궁한 복덕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원만보신 노사나불」이라고 칭한다.

'보신불'은 큰 지혜와 큰 정과 대자비심을 본체로 하고, 한량없이 구족하고 원만한 덕성을 갖추었다. 이러한 보신불의 원만한 공덕의 결과로 스스로도 원만구족하시며, 그의

국도도 또한 청정원만하다. 다시 말하면 보살이 수행 할 때에 원만하게 닦았으므로 그 결과 얻어지는 완전무결한 원만성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부처님은 이와 같이 닦은 인으로 「원만하시어 성취하신」 결과로 원만하므로 원만보신이라 한다.

## ▶ 화신불(化身佛) : 천백억화신 석가모니불

화신은 「웅신」이라고도 하는데 부처님의 위신력을 어디까지나 중생구제에 있으므로 구제받고자 하는 중생들의 요구에 응하여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화현하신 부처님을 이르는 말이다. 중생들의 간절한 염원에 따라 그들을 제도하고자 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 출가수행 끝에 부처님이 되셔서 중생들을 위한 법문을 베푸신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와 같은 화신불이다. 화신불은 바라보는 중생들이 근기에 따라 제각각, 수많은 형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천백억화신 석가모니불」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삼신불의 의미는 부처님이라는 위대한 인격을 그 본질과 현상 및 기능의 측면에서 각기 나누어 본 것으로 법신, 보신, 화신은 하나 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인 원융무애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학생회를 모집합니다



고뇌하는 청소년들이여 지금의 나로 태어났음에 감사하라. 그대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우연히 아니다. 모두가 전생에 좋은 업을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에 만족하고 사람으로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어떻게 하면 지금의 나를 향상시키고 많은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라.

불교 총지종 정각사에서는 부처님과 함께 꿈을 실현하고, 자비를 실천할 학생회를 모집하오니 많은 교도가정의 자녀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

## 불교 총지종 정각사

주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8-8

전화 : 051) 552-7901

정각사 주교 경원 합장

## 총지 논단

## 이원진리(二元眞理) ③

본 글은 종조 원정 성사께서 서적 긴행을 위해 친히 쓰셨던 원고의 일부입니다. 원정 성사께서 창종의 뜻을 구국도생(救國度生)에 두셨던 만큼 구구절절 일체중생제도의 대비원(大悲願)이 느껴집니다.

또한, 한국밀교의 종통을 창종정신으로 삼았던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는 정통밀교종단의 교성과 사상의 체계와 정립에 전념하셨습니다. 특히, 한때 진각종단의 총인직을 맡으셨을 때는 모든 교리체계와 교전편찬을 손수 완성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면면은 원정 대성사의 유고(遺稿)에서 엿보게 됩니다. '심인진리' '진각' 등의 언급은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총지종과 진각종의 교전을 아우러고 있는 종조 원정 대성사의 가르침에서 대성사의 숨결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편집자주)

서게 되며 자율적으로 공도를 실천하게 될 것이다. 공의(公義)를 세워 가는 현대에서는 종교인이 자유국가를 건설하는데 직접으로나 간접으로나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유국민은 상식적으로서도 다 알아야 한다. 봉건사상에 짐작하고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도 이원 다원으로 발전하여 가는 자유종교가 자유세계에서 공의를 세워 가는 법계(法界)의 대법(大法)이 되어 있는 줄 알지 못하는 것을 범계 진각님께서 애민하고 계실 것이다.

종교는 많은 집단과 단체 가운데에서도 항상 선량한 사상을 주창하고 또 질서있는 안정한 체제를 세워서 사회 국가에다가 반영하고 영향을 주어 영원한 불멸법이 되는 것이며 아침에 났다가 저녁에 없어지고, 내일에 없어지고 일년에 없어지고, 십년에 없어지고 백년에 없어지는 그것이 아닌 까닭이다.

자손들을 데리고 한 집과 한 동네에만 꼭 산다는 것은 일원이고 자식은 자유로 살립을 내보내고 가족제를 민족제로 바꾸어서 형제 일가 흩어져서 사는 것이 이원이다.

요순(堯舜)을 생각하고 천자(天子)를 섭기면 시대사상이 행복하게 될 때와 달리 앞으로 점점 혁신해서 가는 하는 봉건습관에 짐작이 없는 자식들의 사상과 언론을 세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고로 현대 이원주의는 이전 것을 전혀 없애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전 것은 보이지 않는 토대로 만들고 위에다가 새집을 건설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다시 말하자면 장자라도 분기해서 사는 데는 완전한 자유가 되어도 부모 밑에 크고 교육을 받을 때와 같이 한 집에 살고 있으면서 부모

의 통솔과 지휘에 따르지 않으면 가족은 서로 배역한 데 이르고 만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식들을 자유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모는 자식들의 교양과 결혼 책임을 미친 후에는 곧 나누어서 사는 것이 자식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는 것이며 이원을 세우는 것이 된다.



한 집에서 줄을 당기듯이 사상이 맞지 않아서 오래 가게 되면 그집은 없어지고 만다. 그러므로 분가(分家)를 한다는 것이다. 마치 어제 일은 오늘 일은 이어오고 작년 일은 금년 일을 이어오고 이전 일은 이제 일을 이어오고 조상은 자손을 이어오고 어버이는 자식을 낳고 기르고 가르쳐 오는 것과 같이 현실로서 근본이라 주장되지 않을 수 없으며 새로운 역사를 가지고 출발하고 새로운 우주를 창조하는 데는 새로운 사상이 필요하게 되므로 법계 진각님께서 새로 나는 아들과 손자에게 시대의 향상을 따라 지혜와 자비와 선근을 잡착 없이 단순하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진리로서 근본이라 주장 아

니 될 수 없는 까닭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장구한 시일에 병든 것은 역사적 장구한 시일을 요해서 바루게 되므로 새 것을 세우는 데 이전 것을 곧 없애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래가지 못하고 곧 혼란하게 되므로 이원이라야 되는 것이다. 우리의 시조 조상은 제일 높아서 봉건사

그러나 장군이 군문(軍門) 안에서 항상 불법(佛法)을 설하고 있는 것을 본 정사(正師)는 그 나라가 장차 힘이 없어져서 나라가 쇠하게 될 것을 나는 지혜가 있어야 하고 비록 일선 가운데라 할지라도 종교의 전당(殿堂)을 징발하는 것은 일원에 돌아가므로 이원의 힘이 없어져서 결국 이기지 못하는 법이며 더욱 정사가 보살회 안에서 현실로 이기는 법을 설하고 있는 것을 본 삼군(三軍) 장령(將領)은 그 나라의 양심적 진리가 없어서 쇠할 것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소금 가운데 있는 고기에는 파리가 쉬를 쓸어도 쉬는 구대기로 화해 자라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군(軍)을 세우려고 종교를 방해하지도 말고 종교를 세우려고 군(軍)을 방해하지도 말아야 한다. 이와 같은 두 능력을 가진 자유국가의 사상을 능히 자유할 수 있는 이원 앞에는 강적이 없느니라. 또 이를테면 재가법(在家法)을 세워가는 조계종의 지배 밑에 보호를 받게되면 아무리 원리와 교육이 다르고 기관이 나누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이원이 되지 못하고 원리는 같고 교육 하나만 다투더라도 지배를 받지 않으면 다원 속에서 발전하는 것이니 자유 극락 세계를 건설하는 데 미묘한 법이 될 것이다.

인심(人心)은 곧 천심(天心)이라. 속박과 구속이 없는 자유 속에서 미천한 대중의 뜻과 부르짖는 말이 곧 진리라. 그러므로 이상의 자유를 전승하는 세계에서는 민의(民意)로써 법을 세우고 개법(改法)을 하게 되는 것은 이 진리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진각(眞覺)님이 고통에 빠져 있는 대중을 먼저 깨닫게 하여 자유국가에 근본이 되게하며 행복하게 되느니라. (자료제공: 종학연구실)

우선 현세에서 자손과 살림이 잘 되게 하자면 영식 존재를 가지고 계시는 조상을 위해서 강도하고 복업을 지어서 잘 될 것이고 물질을 오래 가지고 행복하게 살자면 진각님을 믿고 육행을 실천하여 심인을 깨닫고 인과를 내증하게 되어야 행복이 장원하게 될 것이요 물도(物道)가 일어나게 하자면 종교가 종파로 발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공도(公道)가 일어나게 하자면 자유종교가 종파로 발전하기를 육성하고 보장하게 되어야 한다. 이와같이 종교가 발전하는 데는 힘쓰지 않아도 공도(公道)는 자연 서게 될 것이다. 종교가 크게 발달하자면 반드시 종파가 나누어져서 발전하게 된다. 종교가 분화 발달하는 그때는 벌써 공의(公義)가

## 조선화원장의 총지 동의 보감



여성의 질반은 매달 생리통에 시달리고 있다. 생리통은 월경이 시작하기 전이나 진행 도중 혹은 끝난 후 허리나 하복부에 통증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은 월경이 오기 1~2일 전 또는 월경이 오는 첫날에 시작하며 월경을 시작하게 되면 점차로 통증이 없어진다. 하지만 심한 경우에는 월경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지속되기도 한다.

생리통의 증세는 대부분 복부통증뿐만 아니라 전신증상까지 동반하게 된다. 예를 들면 유방이 팽창하여 아프거나 속이 메슥거리고, 구토가 나며 허리가 아프고 심하면 하복부까지 아프다.

한방에서 월경통은 전통적으로 통경(痛經) 혹은 경행복통(經行腹痛)이라 한다. 서양의학에서는 자궁근의 과도한 수축성에 의하여 이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설과 자궁내막과 자궁근증 속의 혈관경련이 원인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그러나 치료는 진통제를 투여하는

## 생리통(生理痛)

정도 이외에는 근본 대책이 없다.

▶ 월발성 생리통(原發性生理痛)은 결혼 전의 여성에게 많다. 대다수가 초기에 있은 후 얼마 안 가서 월경통이 시작되고 결혼하여 애기를 낳으면 점차 나아지거나 없어진다. 이것은 골반내에 분명한 국소 병변이 없는 데에도 자궁근육이 경련을 일으키거나 자궁내막의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거나 정신적인 원인 등으로 일어난다.

▶ 속발성 생리통(續發性生理痛)은 결혼한 여성에게 많이 온다. 대부분 월경이 시작된 지 수년 후 발생하는데 반수 이상은 골반내의 기질적 병변, 예를 들어 골반염, 자궁근증이나 자궁종양, 자궁내막증 등으로 일어난다. 이는 원인이 되는 병이 치료되면 자동적으로 사라진다.

한방에서 보는 생리통의 원인 3가지에는 (1) 한습저체(寒濕阻滯)로 생리전이나 생리기간 중에 비를 맞거나 수영을 하거나 또는 습지나 콘크리트 바닥에 장시간 앉아 있거나, 아이스크림이나 찬 과일을 많이 먹음으로써

생기는 증상이다. 주요 증상은 생리 시작과 동시에 아래 배가 차갑고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오며 창자가 꼬이는 것 같고 허리나 등까지도 저리고 아프다.

이 때는 생리량이 적고 땅여리도 나온다. 월경이 빠져나가도 상쾌하지 않고 주로 따뜻한 것을 찾게 된다. 치료는 경락을 따뜻하게 해주고 찬 기운을 풀어 주는 운경탕(溫經湯), 운경화습탕(溫經化濕湯) 등을 처방한다. (2) 기체어혈(氣滯瘀血)은 평소 생리증에 위생이 청결하지 못했거나, 심한 운동을 했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기운이 정체되어 월경배출이 곤란해져서 통증이 오게 된다. 치료는 어혈을 풀어 주는 현부이경탕(玄府理經湯)을 처방한다. 그리고 (3) 기혈허약(氣血虛弱)은 선천적으로 체질이 약해서 기운이 부족한 사람이거나 수술후유증이나 중병을 앓아 피가 부족할 경우 생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치료는 기혈을 보해 주는 보증의기탕(補中益氣湯)과 감방을 처방한다.

월경통은 월경이 시작하기 전이나 진행 도중 혹은 끝난 후 하복부에 주로 나타나게 되고 대부분은 월경이 오기 1~2일 전 혹은 월경이 오는 첫날에 시작하며 월

경이 나오면 점차 통증도 소실되는데 이것이 가장 일반적 유형이다.

생리통은 미리 조심을 하면 예방이 될 수 있는 질환이다.

## 생리통 예방법 8가지

생리 전에는 공기가 잘 통하고 보온이 잘 되는 옷을 입는다.

생리중에는 위생을 철저히 한다.

정신적 긴장을 해소하도록 하는 게 좋다.

생리중에는 극렬한 운동이나 과로를 삼간다.

습기가 많은 곳이나 찬 곳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냉수욕이나 수영을 삼간다.

설익은 과일이나 찬 음식, 신맛이나 달은 맛의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쑥뜸이나 따뜻한 물수건으로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준다.

여성 美 한의원 원장 ☎(02)545-0072



## 여성 美 한의원

## ▣ 여성병(부인과) 클리닉

- 월경병 : 월경불순, 생리통, 무월경, 월경곤란증, 갱년기 장애, 과소-과다월경 등...
- 생식기병 : 자궁근증, 질염, 냉증, 대하증, 봉루증, 자궁선근증, 요실금...
- 임신병 : 불임, 임신오저(임덧), 임신증독증 등...
- 산후병 : 산후풍, 산후비만, 유산후유증 등...

\* 기능성성자와 요법(자경단, 요실탑 등)으로 탁월한 치료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 비만 클리닉

- 여성 : 자궁 다이어트

- 남성 : 복부 다이어트

## ▣ 가족 클리닉 - 보양, 수험생 등

\* 환자들의 요청으로 2003년부터 남편 및 자녀들을 위한 클리닉을 개설하였습니다.\*

## ▣ 진료시간

평일 9:30분~오후 6시30분

주말 9:30분~오후 4시

점심시간 : 오후 1시~오후 2시



여성 美 한의원  
여성병(부인과)으로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합니다.  
한의원은 다양한 치료법으로 여성의 건강을 회복합니다.  
여성의 질환 위에 최선의 치료를 다각화합니다.



최고의 진료 및 시스템

온라인 상담 www.women119.co.kr

전화상담 02)545-0072

Fax 02)545-219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한남대교

잠원동

신사역3번출구

30M

20M

지하철출구

1분거리

STARBUCKS

메릴마틴의원

일방통행

경남역

신사역1번출구

도산대로

신한은행빌딩

메릴마틴의원

자훈욕기

## 풍경소리

## 행복

지위가 높고 돈 많은 것이 곧 행복이라고 믿기 쉽습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의 대통령 부부는 그 높은 지위와 '3천 컬래의 구두'로 대표되는 호사의 극치에도 불구하고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행복이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빼앗을 수도 뇌물로 주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비로운 마음속에만 뿐만 아니라, 그리하여 누구나 스스로 싹틔워 가꿀 수 있는 꽃씨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는 꽃씨가 들어 있습니다.

꽃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 강호형, (수필가)

## 작은 술씨가 무른 소나무 되네

계란을 자세히 보시거나

눈, 귀, 코도 없이 통글통글하여

아무 지각도 없어 보이는 데

따뜻한 곳에 '꼬끼오'하고 우는

물건이 그 속에서 나온다네.

매일 비록 작으나 그 속에서 송골매가 나오고 술씨가 비록 작으나 낙장송이 거기에서 나온다네.

알로 있을 때 보면 무정한 물건 같으나

이렇듯 당당하게 박차고 나오는 산 물건이 아니던가.

우리의 마음 法(法)도 이와 다르지 않다네.

- 용성스님-

## - 왜 청정에 드시나요

프랑스에서 서양철학을 공부하고 돌아온 교수가

## 일연(一然) 스님의 말씀

세상에 제일 고약한 도둑은 바로 자기 몸 안에 있는 여섯가지 도둑일세. 눈 도둑은 보이는 것마다 가지려고 성화를 하지 귀 도둑은 그저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 하네. 콧구멍 도둑은 좋은 냄새는 제가 맡으려고 하고 혀바닥 도둑은 온갖 거짓말이나 만난 것만 먹으려 하지.

제일 큰 도둑은 훔치고, 못된 짓 골라하는 봄뚱이 도둑.

마지막 도둑은 생각 도둑. 이 놈은 쓰다. 저 놈은 없어야 한다. 혼자 화내고 떠들며 난리를 치지. 그대들, 복 받기를 바라거든 우선 이 여섯가지 도둑부터 잡으시게나

- 고승열전 중에서 -

## 나도 한마디

## 청소년교육 이대로 좋은가?

2월 18일 저녁 10시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오는 도중 라디오에서는 그날 오전 9시 50분 대구시 중앙로역에서 정신불명증인 한 사람의 지하철 방화로 인해 수백명의 무고한 생명이 목숨을 잃어서 유기족들은 오열하고 정부는 그 지역을 재해지역으로 선포하고 사고수습에 최대한의 노력을 헌다는 시지와 함께 온 나라의 슬픔에 젖어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그때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청년이 버스를 탔다. 카드지급기에 카드를 서너번 접촉하여도 다시 시도해 주십시오라는 메시지가 계속 들렸다. 그때 다른 사람이 카드지급기를 사용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운전수 아저씨는 그 청년에게 "뭣 사람이 먼저 사용한 후 사용해라."라고 반말을 했다. 그때 그 청년은 "당신이 뭔데 나한테 반말을 해요"라고 고함을 쳤다. 운전수 아저씨는 화가 치밀어 오름을 참으며 버스를 난폭하게 운전하다가 신호등에서 버스를 멈추더니 그 청년에게다가서 "나도 너만한 아들이 있어, 어디서 배운 버릇이야!" 그때 청년은 "뭐야,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하고 맞대등했다.

운전수 아저씨는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어서 운

전을 해야만 했다. 운전을 하는 운전수는 화를 참지 못했던 버스의 속도가 난폭해지는 것 같았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나는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하고 못내 삶의 현실에 회의감을 느꼈다. 아침에는 한 사람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 혹시 저 청년도 지하철 방화를 저지른 사람과 같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더불어 청소년에 대한 도덕교육과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느꼈다.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이재현)

나도 한마디는 총지총보 독자의 공간입니다.

책을 읽고 느꼈던 소감이나 총지총보, 총지

총 종단에 바라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분은 총지총보사로 원고를 보내주시면 소정의

원고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총지총보사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6-2  
전화 : 02)552-1080 팩스 : 02)552-1082  
이메일 : kyjy@hanmail.net



## 1. 접수대상

- 불교와 전통문화를 사랑하는 모든 이

## 2. 경연부문

- 단체 행진 등 부문 : 연등축제에 참가하는 단체로서 참여대중이 들고 행진 할 새로운 등
- 개인 창작 등 부문 : 개인이 자신의 정성과 아이디어로 만든 순수 창작등

## 3. 접수

- 기간 : 불기 2547(2003년) 4월 7일 ~ 10일(4일간)
- 접수처 : 조계종 총무원 불교회관 1층

## 4. 규격

- 단체 행진 등 부분 - 가로, 세로, 높이 50cm 이내
- 개인 창작 등 부분 - 가로, 세로, 높이 150cm 이내

## 5. 심사 및 발표

- 심사 : 4월 11일(금)
- 발표 : 4월 14일(월), 개별통보

## 6. 상금내역

- 부문당 최우수 1명(1,000,000원)
- 우수 1명(500,000원)
- 특선 2명(300,000원), 입선 각 약간 명(100,000원)

## 7. 특전

- 불기 2547년 연등축제 등 전시회 참가(5월 2일 예정)

## 8. 문의

- 조계종 봉축위원회 전화 : 02)725-6641/  
팩스 : 02)725-6643/  
hong@buddhism.or.kr

The 4th Lantern Contest

# 제4회 경연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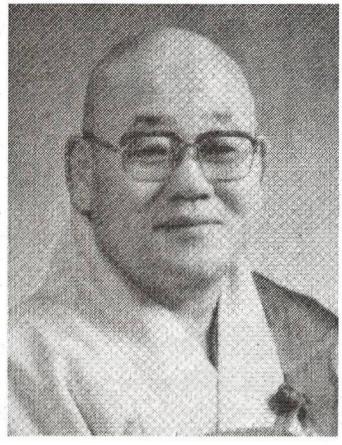
연등축제의 주제이기도 한 전통등 문화의 현대적 복원과 대중화를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등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불교와 전통문화를 사랑하는 분이면 누구나 출품 가능하며, 정성과 참신함이 돋보이는 많은 창작등을 기대합니다.

특히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 “원융과 화합의 종단으로 이끌겠다”

## 법장스님, 조계종 제31대 총무원장당선



한 종단의 4대기조를 다시한번 상기하며, 종도와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종단, 세계로 나아가는 종단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선거는 조계종 역사상 종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사상 유례없는 화합과 안정속에서 치른 선거이며, 선거기간 동안 입과 생각으로 지은 죄업을 참회한다”고 밝혔다. 또한 “종하스님께 존경의 예를 표하며, 이제 일불제자로서 선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은 하나님”며 격려의 말을 했다.

법장스님은 제7교구본사 예산수덕사 주지스님으로서 수덕사에서 원담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여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하였으며, 동국학원이사, 생명나눔실천회 이사장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제31대 총무원장 선거는 중앙종회의원 81명과 각 교구본사 선거인 10명씩 240명으로 구성되는 총무원장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되는 간선제로서 이번 선거는 지난 2월 14

### 법장스님이력

본적: 충남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20  
주소: 충남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20  
법명: 法長 (속명: 김계호)

생년월일: 1941년 6월 15일

#### ▶ 약력

1960. 3. 7. 수덕사에서 입사 원담선사를 은사로 득도  
1965. 3. 15. 정혜사 선원에서 안거 성만  
1971. 1. 1. 제7교구 본사 재무국장  
1972. 2. 28.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1975. 양산 통도사 극락선원에서 안거 성묘  
1980. ~ 중앙종회의원 4선(四選) 역임  
1981. 1. 19.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사무처장  
1982. 3. 27.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부장  
1984. 1. 9. 대한불교조계종 재무부장  
1984. 8. 2. 대한불교조계종 선거관리 위원  
1984. 8. 30. 대한불교조계종 재심호계위원  
1987. 7. 학교법인 동국학원 재단감사  
1992. 4. ~ 충청남도 지방경찰청 경승실장(현)  
1992. 4. 22. ~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 본사 수덕사 주지(현)  
1994. 내무부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역임  
1994. 4. 대한불교조계종 개혁회의 의원  
1994. 5. 대한불교조계종 개혁회의 행정분과 위원 역임  
1994. 11. 대한불교조계종 법규위원 역임  
1995. 6. ~ 대한불교청년회 부총재(현)  
1996. ~ 한국유권자운동연합 공동대표(현)  
1998. 2. 20. 원광대학교 명예철학박사 학위 취득  
1999. 2. 문화관광부 한국방문의 해 추진위원 역임  
1999. 10. 10. ~ 학교법인 동국학원 재단이사(현)

일 후보초청 종책토론회가 종단 역사상 처음으로 실시하는 등 종단의 안정과 화합의 분위기속에서 종책을 제시하고 토의하는 등 진일보한 선거였다고 할 수 있다

제31대 총무원장 스님은 선거일 당선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4년동안의 임기가 시작되며, 오는 2월 27일 오전 10시 종단의 원로회의 인준을 거쳐 3월중에 취임법회를 하게 될 예정이다.

### 남북 불교계 인사 합동 법회 봉행

‘3.1 민족대회’에 참석중인 황병준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부

위원장 등 북측 불교계 인사 6명은 3월 2일 강남 봉은사에서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 등 남측 불교계 인사들과 함께 ‘3.1절 기념 조국통일기원 남북불교도 합동법회’를 봉행했다.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명종을 시작으로 진행된 이번 법회에서 남북 불교계 인사들은 공동발원문을 채택하고 남북 불교교류의 활성화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법장스님은 봉행사에서 거듭 환영의 뜻을 전달하고 “남북교류 활성화로 민족화합과 통일을 앞당기자”고 남북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봉축일, 광복절 남북동시 법회 봉행

2월 10일 남측불교도대표(종교, 학당, 도각, 월해, 무원)와 북측 불교도대표(심상진, 정혜, 정덕, 서재영)는 북경 평양관에서 종단 협주회 조불연 회담을 갖고 ‘부처님 오신날’, 6.15 남북 공동 성명, 8.15 등 이제까지 관례적으로 진행해온 남북불교도 동시에 법회 계속 진행하고, 남북 합동 법회는 방북 혹은 방남시 봉행하고, 3.1절 민족 공동행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남북불교계가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공동 발원문을 발표하고 합의서를 교환하였다.

또한 이외에도 민주본부를 단청 지원을 위해 3월 중순경 4부5일 동안 5~6명의 실사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했다.

## 종교계 평화만들기 천만인 서명 돌입

한국종교인평화회의 한반도 평화만들기 종교인 포럼 열어

미국의 이라크 공격 위협과 북한 핵위기 등으로 전 세계적인 반전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계는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불교와 원불교, 천주교 등 7대 종교계가 참여한 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 어제 프레스센터에서 ‘한반도 평화만들기 종교인 포럼’을 열고 한반도 평화만들기에 나섰다.

전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과 강원룡 목사, 최기산 주교 등 원로, 중진 종교인들은 기조강연을 통해 반전과 반핵, 평화만들기에 종교인들이 앞장설 것을 당부했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회담스님은 ‘평화주의를 표방함으로써 국민의 선

택을 받은 진영에서는 새 정부 출범의 부담을 덜기 위해 몸을 움츠리지 말고 다시한번 평화주의에도 민족의 의사와 역량을 결집해 전쟁과 대결의 위기속에서 불안해 하는 국민에게 위인을 주고 희망을 안겨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홍창진 신부도 “사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지난해까지 대북지원 액은 국민 1인당 2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종교인들은 이어 한반도 평화만들기 천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고, 불교계 단체들은 회의를 갖고 전쟁 반대촉구 성명서 채택 등 향후 대책을 마련하였다.

## 태고종 “중흥결사 조직한다”

### 종단내 모든 갈등과 내분 해소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스님과 전 총무원장 종연스님은 2월 18일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에서 회동을 갖고, 지난 2001년 총무원장 선거에서 불거진 종단 내의 모든 갈등과 내분을 해소하고 종단 중흥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종단 충진 스님들을 중심으로 ‘종단 중흥결사’를 조직, 종단의 역량을 결집하고 종단의 안정적 개혁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총무원에서 진행중인 학교법인 동방대학교 인수, 총무원사 이전, 종단 정체성 확립, 승풍 진작, 종단 주요사찰의 종무행정 참여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동에서 전 총무원장 종연스님은 “과거를 종단발전의 한 과정으로 승화시키고 제2창종에 버금가는 체질개선을 통해서 종단 중흥의 전기를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현 총무원장 운산스님은 “형식적인 회합이 아닌 진정한 회합을 통해 종단 발전을 이끄는 지도자로 거듭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는 종연·운산·전·현직 총무원장을 비롯해 원봉·자월·혜공 부원장, 월해 총무부장, 일운 전 총무부장, 법선 전 재무부장, 학현 전 교무부장 등이 참석했

## 한국불교 ‘간화선 일변도’ 수행체계 문제점 공론화

### 간화선 화두수행법은 어렵고 대중성 잃어

2월 25일 남원 실상사에서 열리는 제7회 선우논강에서 초기불전 연구원 지도법사인 각목스님은 한국불교의 문제점으로 간화선에 비판을 제기하였다. 각목스님은 발제문에서 “한국 간화선은 흰두화되어가고 있다. 즉 아뜨만·브리만이라는 전제를 두고 그것과 합일하려는 흰두작 발상과 모든 전제를 부정하고 부정한다는 것까지 부정하는 간화선의

화두 수행법은 너무 어렵고 합리성을 존중하는 현대에서 대중성을 잃어가고 있으며, 힘으로 밀어붙여 화두가 핵폭발하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평하고 터지면 그 즉시에 도인이 되고, 부처가 되어 만중생의 존경과 귀의와 친란과 예경을 받게 되는 돈오돈수를 생각하다 보니 수행자들은 너무 긴장하고 날카로워지고 있으며, 가장 큰 문제점은 간화선 권위

### 목탁소리내는 송아지, 전생에 스님이었소…

#### “음애~ 똑 똑 똑” 구경 문의 쇄도

목탁소리를 내는 송아지(경남도 민일보 2월 21일자 19면 보도)에 지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고성군 동해면 정남마을 정운찬(50) 씨의 10개월된 송아지가 태어난지 5개월째부터 목탁소리와 비슷한 둔탁한 소리를 낸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어떤 송아지이기에 이런 희한한 행동을 하느냐며 전화로 문의를 하는 사람들이络이지 않고 있다.

이 마을에는 절도 없고, 목탁하는 사람도 없어 그 진원지를 찾는데 한참 걸렸다고 한다. 마을 주민들은 “어미가 4째째인 이 송아지를 낳은 후 수태를 못해 지난해 팔았는데 소리를 내기 시작한 시점이 어미를 떠나 보낸 이후에서 어미를 그리는 소리가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이후 주인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은 당연한 일이고 최고급 여물과 외양간 청소까지 특별대우를 받는다. 그리고 반신반의하며 찾는 스님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고 있다.

봉축위원회는 봉축표어 공모에 접수한 159개의 표어중 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강정운씨가 응모한 〈가족을 부처님처럼〉을 올해의 봉축표어로 선정했다. 봉축위는 ‘금년도 연등축제의 경우 어린이날 전날이고 부처님 오신날은 어버이날과 같은

### “가족을 부처님처럼”

#### 봉축위, 불기2547년 봉축표어 선정



봉축위원회는 봉축표어 공모에 접수한 159개의 표어중 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강정운씨가 응모한 〈가족을 부처님처럼〉을 올해의 봉축표어로 선정했다. 봉축위는 ‘금년도 연등축제의 경우 어린이날 전날이고 부처님 오신날은 어버이날과 같은

### 불교사회복지 지도자 과정 개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부설 불교사회복지 아카데미가 불교사회복지 지도자 과정을 개설한다. 3월 11일부터 5월 27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실시되는 이번 강좌는 ‘불교사상과 사회복지, 불교사회복지정책’ 등 총 12강좌로 진행되며 불교사회복지에 관심있는 불자라면 누구든 접수 가능하다. 특히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불교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설립시 행정업무, 자문, 조계종 봉사단으로 활동, 취업알선 등 특전이 주어진다. 신청 및 문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02-734-0613

## 타악 뮤지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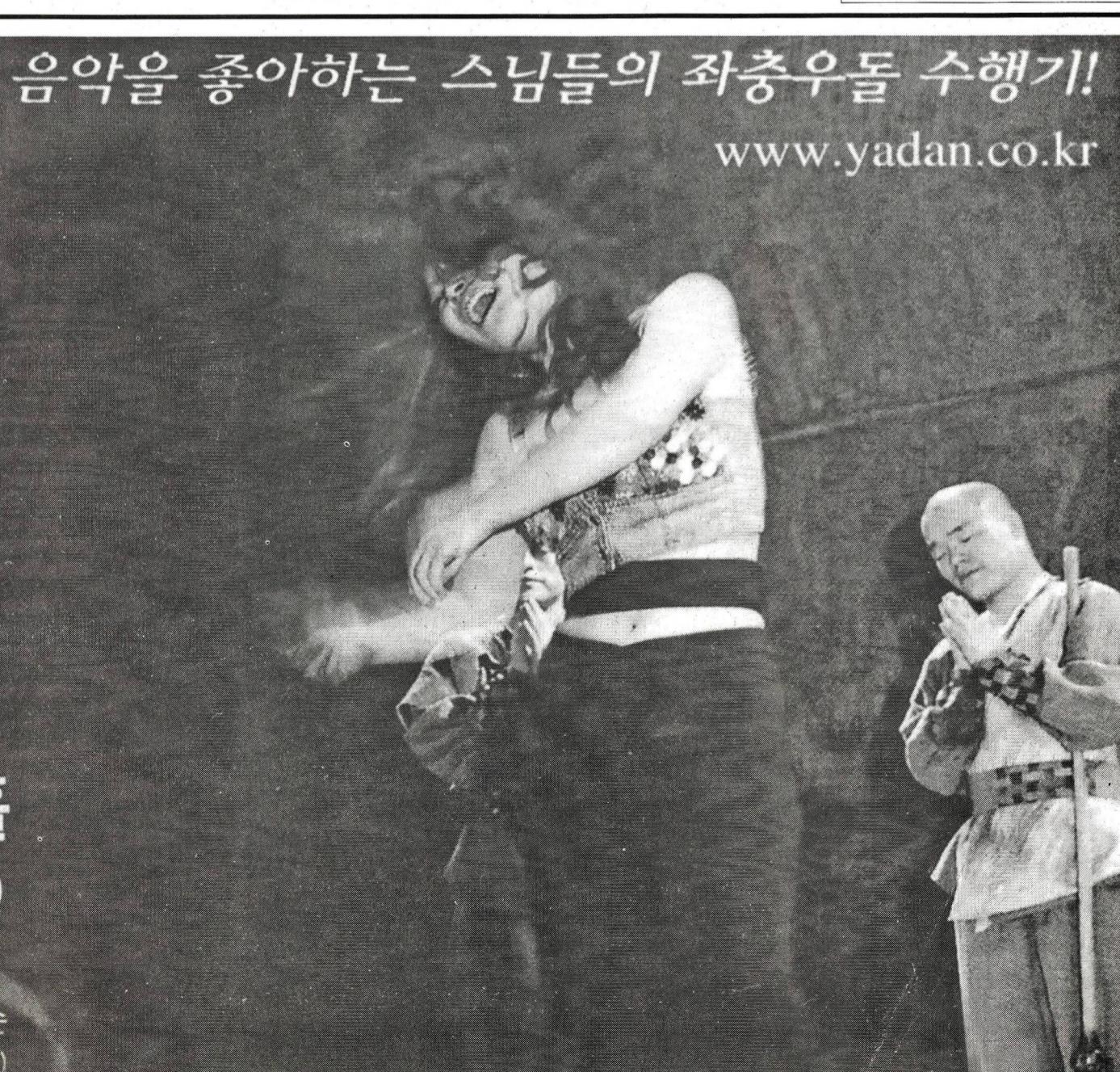
# 야단법석

2003. 3. 7(금) ~ 3.30(일) 장소: 연강홀  
평일 7:30, 토요일 4:00, 7:30, 일요일 4:00

후원: 불교TV 불교신문 협찬: H 한국도자기

출연: 강준석, 고병석, 양진영, 유형열, 이재현, 이재일, 김소영, 손미순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 A석 12.000원 (초·중·고생 50% 할인, 대학생 및 10인 이상 단체 20% 할인)



# 모든 禍는 입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痘은 입으로 들어간다

## 수행자에게 평상심과 戒律을 지켜, 청정한 마음을 더럽히는 마구니를 물리쳐야 합니다

입으로 짓는 죄는 험담(惡口), 쓸데없는 말(妄語), 속이는 말(綺語), 이간질(兩舌) 등인데, 하나님나라 무의식중에 저지르는 것이 많습니다. 청찬하고, 필요한 말만 가려서 하며, 진실하고 솔직하며, 화합에 도움이 되는 말을 하는 것이 좋은 줄은 다 알고 있지만 어디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부지불식간에 남을 훨들고 거짓말을 하고 다툼을 부추기는 말을 하게 되는 게 요즘처럼 복잡하고 소란스런 세상에서는 디辈子이지요.

입으로 짓는 죄악이 가져다주는 업보는 매우 무섭고 끔찍합니다. 예컨대 밭설지옥(拔舌地獄)이라고 해서 구업을 지은 사람이 받는 과보의 경우를 보면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 혀를 보습으로 갈아내거나 철못으로 뽑아내는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디 꼭 죽어서 받는 과보만이겠습니까. 구시화문(口是禍門)이라면 말처럼 말을 잘못해 당장에 화를 입는 사람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고속버스 유리창을 통해 들어온 햇살이 부드럽게 스친다. 벌써 봄의 향기를 품은 듯 상큼한 새벽공기는 포항 수인사를 향하는 마음을 바쁘게 재촉한다. 매서운 바람속에 봄의 기운이 달려있는 것은 우리와 우리를 둘러싼 모든 현상은 끊임없이 흘러가고 변하여 항상 된 것이 없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다.

그러나 법부들의 어리석음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속에 살고 있다. 매서운 찬바람이 향긋한 봄바람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깨지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다.

스승님과 약속시간을 맞추기 위해 새벽부터 서울에서 달려간 수인사에서 처음 마주친 사람은 바로 원봉 대정사님이었다. 작업복에 사택을 수리하고 있는지 손에는 연장도구가 쥐어져 있다. “성도합시다. 서울에서 오느라 고생이 많았지요.”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덕 많은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반겨주었다.

스승님은 분별하지 않은 마음이 몸에 베여 항상 인자하고 푸근한 모습을 보여준다. 흰머리의 매력도 인자한 모습에 안성마춤으로 어울린다.

스승님은 70노구에도 불구하고 언제 어디서나 ‘성도합시다’라는 합장인사를 제일 먼저 한다. 성별과 나이, 지위를 떠나 천진한 합장은 스승님의 수행단면을 보여준다.

법당에는 많은 보살님들이 나와 염송을 하고 있다. 특히 신정회 길수인 회장님, 실갑지 부회장, 정인정 총무등 많은 보살님들의 진언염송의 열기가 법당안에 가득하다.

불공이 끝나자 조용히 길수인 회장님에게 달려가 스승님들 흥(?)을 봐달라고 했다. 회장님 웃 “우리 스승님은 너무 인자해서 탈입니다. 많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보살님들 불공하는데 힘들다고 손수 치를



안 되는 거야. 조금 기다리면 만사가 잘 될거야, 여기보다 더 어렵고 힘들게 교회하는 곳이 많은데 육심을 내면 안되지” 하며 웃음을 보인다.

### 항상 항송합시다

법당으로 오르는 계단에 커다란 글씨가 있다. ‘항상 항송합시다’. 스승님이 평소에 가르치는 법문이다. 외롭되게 스승님에게 질문을 하였다. “어떻게 진언수행자의 길을 걸게 되었습니까?” 당돌한 질문

는데 저는 통 거짓말이 안됐습니다. 하기도 싫었을 뿐더러 체질적으로 맞지 않았는지 거짓말을 하려고 하면 가슴이 뛰고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의 사정을 어떻게 알았는지 지금 종령으로 계시는 록정님이 ‘거짓말하지 않고 살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한번 해볼래’ 하는 말씀에 마음이 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대자행 전수님이 국광사 주교로 있었는데 국광사 교도로 있다가 지금 부산 법성사에 계시는

삼기도한다고 합니다.

음의 뜻은 ‘귀의(歸依)’ 또는 ‘공양(供養)’을 의미합니다.

이에 비해 사바하는 ‘원만히 성취됨(圓滿 成就)’이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천수경이나 밀교 경전에 나오는 대부분의 진언은 ‘음’으로 시작해서 ‘사바하’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내가 이제 부처님의 성스러운 말씀을 득송하고 ‘부처님께 귀의하고 공양하오니 제가 소원하는 바가 모두 원만히 성취되기를 바랍니다’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입으로는 염송, 손에는 염주

“분별하는 마음과 평상심(쉽게 이야기) 하면 법당



지표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건강함을 잊지 않고 종지종에 큰 베침목으로 우리곁에 오래 오래 계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 원봉대정사님과 지선행 스승님은

원봉 대정사님은 廿生으로 경북 경주시에서 출생하였다.

어려서부터 모친인 어머님의 지극한 진언수행을 보며 자라 육자진언 음마니반메홀과 함께 자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총기 10년 승천사 주교와 총기 15년 수계사 주교를 겸하였으며 특히 원의원, 사회부장, 종회의원 및 위원장, 사감위원, 총무부장직을 수행하여 종단행정의 경험이 밝다.

지선행 스승님은 戊寅生으로 경북 경주시에서 출생하여 원봉스승님을 만나 2남 2녀의 다복한 가정을 꾸렸으며 불교총지종에 입문하여 진언행자가 되었다. 특히 인육정진과 웃어른에 대한 수순한 마음은 끝없는 헌신과 사랑으로 차운 것이다. 특히 우리는 가장 쉽게 구업을 많이 짓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나오는 황폐한 말들은 사람들의 관계를 힘들게 만들곤 합니다.”



### 처음처럼 초발심으로

신영복 선생님의 처음처럼에는 이런 글귀가 있다. ‘처음으로 하늘을 만나는 어린 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밟고 일어서는 새싹처럼 우리는 하루가 저무는 저녁무렵에도 아침처럼, 새봄처럼, 처음처럼 다시 새날을 시작하고 있다’

수행자의 삶은 또한 처음처럼 항상 초심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진언행자의 길, 스승의 길을 가는 것인지 반문해 봐야 합니다.

세속적인 명리를 위해서 인지, 재물을 탐해서 인지, 아님 편안하고 안락함을 위한 것인지,

우리가 진언행자의 길, 스승의 길을 가는 것은 오

이었는지 스승님은 한참을 회상에 잠기면서 말씀을 하신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업에는 세 가지 종류(三業)가 있습니다. 몸으로 세 가지 업(身三業)을 짓고, 마음으로 세 가지 업(意四業)을 짓고, 그리고 입으로 네 가지 업(口四業)을 짓습니다. 이를 모두 합쳐 ‘열가지 업(十業)’이라고 합니다. 나쁜 마음으로 짓는 열 가지 업을 ‘십악업(十惡業)’이라 하고

하정님과 시각화 전수님의 추천으로 49일 정진과 100일 정진을 통해 진언수행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처음 우리 종단에 입교한 사람들을 보면 보통 밀교와 진언에 생소한 느낌을 가지는데 저는 모친이 진각종 참회원때부터 진언수행을 하는 모습을 보고자랐기에 전혀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도 언젠가는 모친처럼 수행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기도 했지요. 마침 인연이 되어서 다른 사람과 같이 병고 해탈이나 가정해탈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출가를 결심하지 않고 모친의 수행모습과 거짓말 하지 않은 것이 좋아서 결심을 했습니다.”

내친김에 진언의 공덕과 진언수행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진다.

### 下心하는 마음을 근본으로

“진언(眞言)이란 말 그대로 ‘진실된 말’이란 뜻입니다. 어떤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면 참되고 진실된 것을 밀교에서는 ‘밀(密)’이라고 합니다. 입으로 짓는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구업이라면 반대로 선과 악의 행위를 떠난 ‘진리의 언어’를 뜻합니다. 진언(眞言)이라고 부릅니다. 진언은 업이 아니라 진실한 언어이므로 구밀(口密)이라고 합니다. 미친가지로 몸과 마음과 입으로 짓는 삼업(三業)도 그것이 선과 악이라는 인과의 산물이 된다면 삼업이 되지만 그것을 초월한 진실한 행위가 될 때에 그것은 세 가지 비밀스러운 행위가 되는 것(三密)이 됩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과 입으로 밀을 갖추는 것을 삼밀가지(三密加持)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음 ~ 사바하’에 대한 공덕을 모르고 그냥 타성에 젖어 불공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진언불공은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과 부처님과 하나이고자 하는 정성이깃들어져야 합니다. 진언에 있어서 음과 사바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음은 매우 신성한 뜻을 간직한 소리(音)라 해서 인도에서는 모든 종교의식에서 제창됩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음 음”하고 음만 외우는 것을 수행으로

착한 마음으로 짓는 열 가지 업을 ‘십선업(十善業)’이라고 합니다. 그 열 가지 업 가운데 작은 입으로 짓는 업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구시화문(口是禍門)’이라고 해서 입을 회의 근원이라고까지 합니다. 그만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언어가 좌우하는 부분이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전을 독송하기 전에는 이렇게 입으로 짓는 모든 악업을 깨끗이 하는 의식인 ‘정구업 진언’을 먼저 독송하고 나서 비로소 부처님의 말씀을 독경하는 것입니다.

저를 수행자의 길로 인도한 것은 거짓말입니다. 젊은 시절 공무원 생활을 하였습니다. 지금 시절은 공무원의 대우가 그래도 꽤나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30여년 전 시절에는 참으로 어렵웠습니다.

그리고 일의 성과를 높이려면 거짓말도 해야 하

물고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고 모셔오고, 삶은 내색 삶은 소리 한번 뜯어 보고 조용히 한없이 배풀기만 합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과 정을 듬뿍 주듯이 말입니다. 가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스승님 앞에 허물없이, 흥금 없이 털어놓게 만들곤 합니다. 그것이 흠이라면 흠이지 무슨 흥(?)이냐며 손사례를 친다.

그래서인지 사원이 많이 헐었다. 법당 바닥은 빠

걱대는 소리가 나고, 콘크리트 벽은 풍파에 쓸려나가 골조가 보이는 곳도 많이 있다. 스승님이 집행부의 요구를 두루하면서 사원신축에 대한 욕심도 낼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중생심이 앞선 교도들에게는 못 마땅할 것이다.

사원을 하루빨리 신축해야 되지 않습니까라는 질

문에 “조금하게 마음을 먹으면 욕심이 생겨, 그럼

경북 포항시 북구 덕산동 120-1

☎ 054)247-7613

약 도

경주·포항 방면

●수협

수인사

●북구청

나루꼴 방면

영덕방면